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주소: 강사구 공향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6년 5월 8일 (제845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어머니

나는 어머니 말씀대로 아순지 예수에게 미쳐서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서 팔았고, 종손으로서 제사를 거부하다 집에서 쫓겨났다. 그 후로 어찌다 집에 가면 어머니는 내 머리채를 잡고, 내 옷을 찢으시며 “니가 어찌다 이렇게 되었냐?”며 울부짖으셨다. 그런데 동생인 이시대 목사에게 전해들은 이야기다. 어느 날 어머니가 술을 드시고는 방에 들어가 방바닥을 치며 대성통곡을 하시더라. 그래서 이시대 목사가 놀라서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했더니, 어머니가 이시대 목사에게 “나쁜 놈, 오늘이 니 형 생일인데 내가 니 형을 안 본다고 너까지 형 안 챙기냐?”고 하시더라는 것이다. 이시대 목사는 어머니가 형을 미워하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어찌다 어머니가 내 이야기를 하면 일부러 눈에 쌍심지를 켜고 함세해서 욕을 했단다. 어머니 맘 풀리라고. 그런데 어머니 속에는 큰 아들에 대한 사랑이 여전했던 것이다. 돌이켜보니 어머니가 내 옷을 찢고, 내 머리털을 뽑은 것은 어머니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었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 너무 믿었던 아들이, 우리 집안의 든든한 장손이 예수에게 미쳐 모든 것을 팔개치고 다니니 속이 타고 가슴이 아파서 그러신 것임을 후에 알았다. 그러나 내가 애써 위안을 삼는 것은 그런 우리 어머니를 예수 믿게 해서 권사까지 되게 했다는 것이다. 물론 명예권사다. 그것으로 나는 몇 십 년 마음 고생하신 것을 갚았다. 다만 내가 진작 예수를 알았더라면 우리 아버지를 구원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다. 떠도는 영혼이 되어 내 앞에 나타난 아버지 때문에 나는 많이 울었다. 어버이날이다. 선물도, 용돈도, 외식도 좋지만, 가장 큰 효도는 부모님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다. 언제 가실지 모르는 분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전도하자.

하나님도 불만이 있다 하신다

“한미합동훈련을 왜 자주 하는지 압니까? 강인한 군사를 만들어 어느 상황에 서든지 이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기도원집회를 자주 하는 이유도 여러분을 강인한 주의 군사로 만들어 악한 영과 귀신을 넉넉히 이기게 하려는 겁니다.” 이것이 총회장 목사님께서 수요일예배마져 위성을 타고 이번 춘계산상집회를 배설한 이유다. 5월 2일부터 나흘 동안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진행된 집회 첫 시간에 총회장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 일생일대 최고의 설교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실천만 하면 여러분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입에 침

불만(不滿)은 아닐 불(不), 가득할 만(滿)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 ‘너희가 나를 아비로 인정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고, 병을 고침 받고,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도 대체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불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복주고 싶겠습니까? 대통령이 시계 하나만 하사해도, 구청장 결혼식에만 초대되어도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에는 합구하니 하나님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요. 뭐 자랑하면 악한 것이 틈탄다고요? 자랑하면 교만해진다

나고 봄이 와 목회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부모가 작은 것을 선물해줬는데 여기저기 자랑하면 부모가 마음이 뿌듯해서 더 큰 것을 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수술을 해서 병이 나았어도 하나님이 좋은 의사를 붙여주셨다, 의사 손길을 통해 고쳐주셨다 자랑해야지요. 권력자를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여도 그 권력자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왜 사람을 자랑합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고전3:21). 하긴 목사들도 단에서 지식자랑이나 하고 있으



2016 춘계산상집회(5월 2일(월)~5일(목), 장성 예루살렘기도원)

이 마르도록 자랑하면 하나님도 만인 앞에서 여러분을 침이 마르도록 자랑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즉 만사형통하려면 침이 마르게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감정이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마10:32~33)는 말씀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하고,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를 사랑하고, 나를 자랑하면 나도 너를 자랑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데 어찌 귀신이 틈타고 교만해지겠습니까?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 내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며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다닙니다. 나는 백문백답이 예수요, 천문천답이 예수입니다. 예수 때문에 능력을 받았고, 예수 때문에 명성을 얻었고, 예수 때문에 교회가 부흥했고..., 이렇게 자랑합니다. 핍박과 환난이 몰려올 때도 나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자랑했더니 긴 겨울이 지

니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재물을 자랑하다 망한 히스기야를 아시지요? 권력, 미모, 부귀..., 자랑하지 말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하나님도 만인과 천사 앞에서 여러분을 기뻐서 자랑하고 만사형통의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눅12:8~9). 아브라함, 야곱, 요셉, 다니엘, 다윗, 한나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십시오. 그것이 만사형통을 이루는 길입니다.” 사람을 자랑하고, 지식과 미모, 학벌이나 권력, 명예를 자랑했던 것을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자들이 되자.

신묘수

jesus7857@gmail.com



교단 목사님들이 성도들과함께 기도했다



강원도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는 수녀들



회개하며 기도하는 성도들

구독신청 02) 533-9191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시81:5~16)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말라

현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물속에서 물을 찾는 물고기는 참으로 어리석지요. 널린 게 물인지라 입만 벌리면 물이 들어오는데 말입니다. 물고기 주위가 다 물이듯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만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 입만 벌리면, 즉 하나님만 부르면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부족함이 없을 터인데 하나님을 못 부르고 있으니 물속에서 물을 찾는 어리석은 물고기 짝이 난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시81:10) 하였고,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4:6~7) 말씀하셨는데, 입을 못 벌려서 곤고하게, 빈곤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는 말씀은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뭐든 말만 해라. 다 들어줄게."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못 얻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저는 목회 초기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시지요? 일 잘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마 9:37)." 그랬더니 놀랍게도 주변 교회 뿐 아니라 당시 가장 부흥 성장하던 대형교회의 조장, 구역장 등 중추적인 일꾼들이 우리 교회 금요철야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주저앉은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양 도둑놈이니 목회 윤리가 없니 하며 비난도 거뒀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했을 뿐이었습니다. 또한 모 대학 기독교학생회를 이끌던 시절, 세계적인 성가대를 꿈꾸며 그 대학교 음대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기

해주는 역사, 그리고 그들이 저를 돕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은 집회영상을 통해 수없이 보았을 것입니다. 제가 오직 하나님께 기도한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중심교단을 일군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 나라가 분명히 평화통일이 될 터인데, 그 때 우리 교단에서 이 나라 통치권자가 나와야 합니다. 각 분야의 수장도 나와야 하고, 각 분야에 세계적인 인물이 나와야 합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저는 분명히 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은 구하지 않습니까? 왜 입을 크게 벌리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무능한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께 구하니까 생

명으로만 됩니까? 최초의 살인자 가인도 하나님께 구하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당신 아들의 피로 산 자녀에게 무엇이 인색할까봐 안 구하니까? 연지 못함은 구하지 않은 연고 아니겠습니까(약4:2)?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히스기야에게 곧 죽으리라 말씀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면벽하고 방성대곡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바로 수명을 15년 연장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해 그림자가 10도나 물러나게 하셨습니다(왕하20). 한나로 하여금 성대치 못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울면서 자식을 구하니 그의 태를 열어 사무엘을 주셨습니다(삼상1).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신 것도 계속 간절히 구하니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눅18:27).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것을 살리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롬4:17).

우크라이나의 니콜라이 목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 제가 탄 리무진을 보고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대요. 제 차와 똑같은 차를 타고 싶다고요. 사실 우크라이나 실정이나 니콜라이 형편으로는 그것이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바랄 걸 바라이지." 그러나 그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독일의 친구가 정말 제 것과 똑같은 차를 사서 가져왔더랍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지요? 하지만 이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당신의 삶에 열매가 없는지 압니까? 그것은 당신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문입니다. 다음 말씀을 잘 살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8).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에덴동산의 모든 것을 손대도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하신 것처럼 열매를 맺는 조건도 있다는 겁니다. 바로 포도나무이신 예수에게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포도나무 가지도 포도나무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면 열매는 고사하고 불쏘시개도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4~5). 우리 교회 장로가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 중에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잘 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이 말이 제일 무섭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요, 물 떠난 고기는 무조건 벌레 밥이 됩니다. 고래도 예외가 없지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진 가지도 그런 짝인 겁니다. 당연히 되는 게 없지요. 삶이 말라 비를 어지지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형편을 염려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가

물 떠난 고기는 벌레 밥일 뿐이다

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단단히 붙어있으면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으며 좋은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문제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들려 있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 그리스도인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제가 오늘날 세계를 교구화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잘 나서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거함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름입니다.

농부의 관심은 포도나무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포도나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명령하고, 그 이름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날로 창대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무엇을 도와주랴?'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꽃씨 속에 꽃이 있는 겁니다. 다들 그 사실을 알면서 평생 꽃씨를 주머니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심어야 꽃이 나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으로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해야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꽃이 만발하게 됩니다.

포도나무에 단단히 붙은 가지가 되십시오.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주일은사집회

장소: KBS88체육관
시간: 주일 오후 3시
문의: 02. 533. 9191

열매 없는 포도나무 다 이유가 있다

도했습니다. "노래 잘하는 음대학생들이 우리 교회로 오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최고의 성악가들이 다 우리 교회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때 성가대가 성도보다 많을 뿐 아니라 모두에게 찬사를 받곤 했습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세계로 나가면서 "권력 있는 자, 재력 있는 자, 지력 있는 자가 나를 돕게 하소서, 각 나라 최고 권력자가 나를 부르게 하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각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총리, 주지사, 시장 등 각 나라와 지역사회의 지도급인사들을 만나 가르치고 기도

::객원컬럼::

::겨자씨만한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올해로 90세가 되신 어머니는 그 연세의 어떤 분보다 건강하시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물론 당시 스스로 젊은 시절부터 부지런히 움직이는 스타일인지라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긴 하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큰 이유가 있다고 믿는다. 현재 어머니는 안산에서 목회 중인 작은 형님이 모시고 있다. 내가 보아도 그런 효자가 없다. 언젠가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

“나는 늙어서 너희들에게 짐이 되긴 싫다. 괜히 병들어 짐이 되기 전에 천국 가는 게 소원이다.”

그 말에 형이 아주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어머니는 절대로 병들어 고생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니의 건강한 여생을 위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게 있기 때문입니다.”

형이 목회 초기에 성도 중 나이 드신 권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는데, 마땅히 그분을 도맡아 케어해줄 가족이 없었다. 자녀들은 낮에는 일 때문에 올 수 없었고, 남편이 있었으나 그 또한 연로한지라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그때 형은 그 권사님의 병수발을 맡아 하기 시작했다. 얼마가 될지 모르는 일이었지만, 그게 생각보다 오래 갔다. 거의 2년 넘게 거의 매일 찾아가 기도 해주며 병수발을 감당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르자 주변에서는 그 정도 했으면 됐지 않았냐며 만류하기도 했다. 그러나 형은 그분이 소천하시는 때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테지만,

형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 권사님을 돌보며 꼭 이렇게 기도했다고 한다.

‘하나님, 제가 이 권사님을 돌보는데 최선을 다할 테니 우리 어머니는 꼭 건강하게 사시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이런 믿음으로 했기에 그 일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었다고 믿는다. 어떤 선의나 봉사정신으로 할 수도 있는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보상해주시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 생각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골3:23).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주께 하듯 하라는 것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다. 오직 믿음이다. 믿음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히11:6). Henry Han
henry8829@naver.com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한 남자가 어린 독수리를 잡아 집으로 데려와 닭과 오리도 들어있는 우리에 넣고 모이를 주어서 키웠다. 5년 후 독수리는 거대한 날개를 갖고도 날지 못하는 닭이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동물학자가 우연히 닭장 속의 독수리를 보고는 독수리를 날게 하려고 하였으나 독수리는 날기를 거부했다. 동물학자는 독수리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웅장한 자연 앞에 독수리를 쳐들었다. 독수리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웅장한 자연 앞에서 문득 용솟음치는 힘을 느끼고 대지를 발판 삼아 힘차게 비상한다. 이 이야기는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라는 이야기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 나의 삶은 그저 꿈도 희망도 없고 하루하루 아무 생각 없이 주어진 삶에 만족하고 타협하며 살아가는 닭이나 오리 같은 삶이었다. 하나님을 만나고부터는 조금씩이지만 확실히 변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일

찍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든지, 해보지 않은 것들을 기꺼이 경험해보려는 것 같은, 자그마한 변화지만 예전과는 달라나의 삶은 답답한 삶이라는 느낌이 점차 가시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다. 하나님 덕분에 나는 나의 좁은 세계를 버리고 더 넓고 충만한 세계를 향하게 될 수 있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나오고 삶이 잘 풀리지 않아 고민하던 차에 ‘기도가 잘 안 나오니 찬송이라도 하자’ 마음먹고 마음속으로 찬송가를 불렀다. 찬송을 하는 그날, 날고 싶지 않은 독수리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고, 계획 없이 살던 예전과는 달리 새로운 정신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든다.

우리는 닭장 속의 닭이 아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독수리처럼 살아야 한다.

김성일
cre8tor@naver.com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2~3)**

::신앙논객::

행복한 나귀가 되자

마가복음 11장과 누가복음 19장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감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 고을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마을에 가면 아직 어떤 사람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까 풀어서 끌고 오라고, 만일 누가 그 이유를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하라 하시면서요. 제자들이 말씀대로 가서 나귀 새끼를 데려왔습니다. 정말 그 나귀는 아직 사람을 태워본 경험이 없고, 몸집도 작고 약한 나귀 새끼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꽤넘치 않으시고 나귀의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왜 하필이면 경험도 없고 힘도 없는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구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새끼니라(슌9:9)”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도 기왕에 메시아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으면, 겉으로 보기에든 준마(駿馬)이면서 힘도 좋고 경험 많은 노련한 말을

타시고 좀 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아무리 봐도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신 걸까?’ 하는 의문은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익히 들었어도 100%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었던 하나님의 성품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 16:7). 겉보기에 초라하고 내세울 것 하나 없어 보여도, 아직 어리고 경험도 없고 서툴러도, 능력 없고 부족한 것투성이라도, 때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낙망해도, 그런 어린 나귀 같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왜 이제야 조금씩 깨닫는지요.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순종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오직 위에 타신 그 분만 영광 받으시도록 쓰임 받은 그 나귀가 마냥 부럽습니다. 우리도 천국에 입성하는 그 날까지 귀하게 쓰임 받는 행복한 나귀들이 됩시다. 신혁주 전도사
blessedmic@naver.com

::생명의 말씀::

품절남 재고녀

에서는 남성미가 넘치는 품절남(배우자가 생겨 일직감치 결혼시장에서 품절된 사람)이다. 사냥 잘하지 꽃미남에 근육질 몸매에 탄탄한 복근, 가슴에 털까지, 이것뿐이라? 넘어져도 오뎅이처럼 일어나는(말1:4), 그야말로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다. 반면 야곱은 어떨까? 생김새도 여자처럼 생겼지, 얼마 부엌일이나 돕는 마마보이요, 진열장에 얹혀놓여 있는 것과 같은 재고남(품절남의 반대개념)이다. 세상은 당연히 에서와 같은 품절남을 찾는다. 그래서일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힘, 내 재주, 내 지식으로 살겠다.’는 에서를 미워하셨다. 그러나 야곱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랐다. 야곱은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했고,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다.

그런가하면 야곱은 형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갔다가 얼굴 예쁘지, 몸매 예쁘지, 총명하기까지 한 라헬에게 반해버린다. 그는 라헬을 얻기 위해 7년

의 머슴살이를 지냈다. 그러나 첫날밤을 자고 나니 라헬이 아니라, 재고녀인 총기도 없고, 얼굴도 못생긴 레아가 품속에 있었다. 삼촌에게 속은 것이다. 결국 야곱은 라헬을 위해 또 7년을 더 머슴을 살고야 라헬을 아내로 맞이한다. 야곱은 예쁘고 총명한 라헬만 사랑하고, 레아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못생긴 것이 죄인가?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창29:31)고 하셨고, 늦게야 라헬에게 요셉을 주셨으며 베냐민을 낳고 죽는다. 하나님은 재고녀인 레아를 더 사랑하신 것 아니었을까? 하나님은 재고녀인 레아의 씨,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여셨다.

복과 축복은 다르다. 복은 세상이 없어질 때 함께 사라지나 축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요, 영원한 복이다. 야곱과 레아처럼, 부족하고 유약한 재고남녀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구하며 의지하여 사랑 받는 예수중심 가족이 되기를 원한다. 임택함 목사
cjcc1004@hanmail.net

